

2022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9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생활함

성경: 롬 5:5, 8:2, 28-29, 31-39, 요 14:21, 23, 21:15-17, 엡 6:24, 계 2:4-5, 7

I.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이 사시는 생활이다 — 영한동번 찬송가 403장, 롬 8:2.

- A.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실 뿐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는 없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을 사셔야만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없이는 그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없다.
- B.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내적 부분들,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되시며 몇 가지 법들이 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사람이 된다 — 롬 31:33, 히 8:10.
1.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일하고 확산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만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 롬 8:2, 28-29.
 2. 만아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 곧 표준 모형이며,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다 — 롬 8:29, 엡 4:20-21.
 3. 하나님께서 이 원형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시는 길은 그분의 살아 있는 원형인 만아들을 우리의 온 존재 안으로 일해 넣는 것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원형과 협력하고 그분께 열어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들 안으로 확산되실 것이다 — 엡 3:16-21.
- C.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인 분)로 취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일하여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사셨던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의 반복인 생활을 우리 안에서 사실 것이다 — 레 1:3-4, 롬 8:2, 엡 4:20-21, 빌 1:19-21 상, 갈 2:20, 행 28:9, 각주 1:
1.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결함과 흠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모든 미덕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되어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분과 하나 될 것을 요구한다 — 골 4:2, 엡 6:17-18, 왕상 8:48, 각주 1.
 2. 구약의 제물의 실재는 그리스도이므로, 제물에 관한 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생명의 영의 법과 일치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무질서하지 않고 생명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레 6:9, 롬 8:2, 비교 고전 9:26-27, 갈 6:15-16, 빌 3:13-16.
- D. “이제 내 영 안에 계셔 / 나와 연합되신 그 영 / 난 항상 나요 그분이니 / 오 놀라운 비밀일세.” — 찬송가 491장 7절.

II.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살려면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첫째 가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 모든 일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첫째 가는 위치를 드려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 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 A. 생명의 영의 내주하는 법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수록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 안으로 이끌리게 되고, 그분은 더욱 더 우리를 매혹하시어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하신다 — 요일 4:8, 16, 19, 엡 3:16-21, 롬 5:5, 8:2, 28-29, 31-39.
- B. 우리는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받아들이고(요 1:12-13),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사랑을 통해 누린다(요 14:21, 23, 21:15-17, 갈 5:6, 6:15).
- C. 모든 사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상이다.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는 것이 모든 시대에 교회가 실패한 근원과 주된 원인이다. 사랑 외에는 우리를 주님과 의 합당한 관계 안에 지켜주는 것이 없다 — 고후 11:2-3, 딤후 1:15, 엡 1:4, 3:17, 4:2, 15-16, 5:2, 6:24, 계 2:4-5, 7.
- D.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첫째가는 일은 첫째가는 사랑에서 산출된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첫째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거를 잃을 것이고,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계 2:4-5, 7, 살전 1:3, 고후 4:5, 비교, 고전 15:58, 16:10, 고후 1:24.
- E.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애정어리고 사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 아 1:1-4.
- F.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 부흥되어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이슬 같은 그분의 청년들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족시켜(시 110:3), 우리가 배우는 이의 혀를 가짐으로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고(사 50:4-5), 하나님과 교통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복음 봉사를 위해 그분의 뜻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막 1:35).
- G.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분배하여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진 사람들인 오늘날의 나실인들이 됨으로써 매일 헌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 시 110:3, 민 6:1-9, 22-27.
- H.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 삼상 12:23, 마 6:6, 14:22-23, 단 6:10, 2:17-18, 딤후 2:1, 딤후 1:3, 살전 5:17.
- I.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보배로 여기고 읊조리는 것이다 — 시 119:11, 14-15, 23, 48, 72, 78, 97, 99, 111, 113, 119, 127, 140, 147-148, 159, 162-163, 165, 167.
- J.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곧 다른 매개체를 거치지 않은 임재의 지배받는 것이다 — 출 33:11, 14, 13:21-22, 고후 2:10, 출 25:30, 각주 1 과 2.
- K.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 엡 5:25, 고후 12:15, 고전 16:24.
- L.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사랑하는 것이다 — 고후 8:5, 요일 1:3, 엡 4:11-12.
- M.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그 영을 따라 섬기며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 — 갈 5:25, 빌 3:3, 고후 3:6, 스펴 4:6, 사 9:9, 비교, 삼상 2:30 하.

- N.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생수의 원천으로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어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배필인 교회가 산출되어 하나님의 확대로서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그분의 충만이 되는 것이다 — 램 2:13, 요 4:14 하.
- O.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즉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 계 2:7.
- P.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분께 가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 사 57:20, 각주 1.
- Q.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 곧 우리를 붙드는 중심으로 취하고 우리의 전부, 곧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 — 골 1:17 하, 18 하.
- R.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를 얻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 고후 4:13, 5:9, 히 11:5-6, 창 5:22-24.
- S.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청옥 보좌가 있는 두려운 수정처럼 맑은 하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아무 것도 없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되어, 그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통치자와 결정자로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겔 1:22, 26, 사 6:1-8, 비교 요 12:41-43.
- T.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머리이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의 친밀한 연결 안에 머물고, 그분 안으로 자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온 몸이 몸의 성장을 가져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게 하는 것이다 — 골 2:19, 엡 1:22-23, 4:15-16.
- U.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것에서 여호와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말씀드리는 것, 믿음 안에서 그분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넘치는 공급이신 살아 계신 영을 받을 수 있다 — 수 9:14, 빌 1:19-21 상, 눅 11:13.
- V.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생명의 흐름,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의 흐름에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비추시는 분, 구속하시는 분, 흐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 겔 47:1, 계 22:1-2.
- W.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며, 그분의 포로들이 되어 “주님, 저를 당신의 포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결코 제가 이기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저를 이기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하시는 것이다 — 고후 2:13-14.
- X.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것에서 주님께 첫째가는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찬양으로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일이다 — 시 22:3, 119:164, 34:1.